



국제기독교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 김승욱

세계관동역회는 지난 9월 28일에 중국 절강성 항주에 위치한 절강대학교 산하 기독교 및 타문화연구소와 국제기독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hristian Studies) 설립을 위한 합작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서 손봉호 이사장, 조성표 세계관연구소장(경북대 교수), 정희영 학회장(충신대 교수), 김승태 대외협력위원장(예영출판사 대표), 정수균 중장기위원장(선교사), 김승욱 실행위원장(중앙대 교수) 등 6명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항주를 방문했다.

중국측 대표는 청화대학교와 절강대학교 공동교수인 왕효초 교수였다. 그는 절강대학교 기독교 및 타문화연구소 주임교수이기도 하다.

합작의향서에는 “한-중 학술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독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세계 학계와 궤를 같이하며, 기독교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력 쌍방이 모두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술 연구기구로 발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절강대학교의 위 연구기지 내에 ‘국제기독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Christian Studies)’를 설립하여, 학술연구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학술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임 혹은 겸임 연구원을 두고, 일상 업무는 한 중 쌍방이 추천한 직원이 처리하기로 했다. 조직은 자문위원, 이사회, 소장, 학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 이사회는 재무를 책임지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기로 했다.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서 학술회의 및 교류를 추진하며, 학술지를 발행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사업 내용을 정했다. 이번에는 큰 틀의 합의만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전개할 예정이다.

합작의향서 교환 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한국 사회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그 곳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본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이 주제로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논문들과 김지철 목사의 강의 자료 등을 합해 책을 내고,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망교회 박래창 장로(현 CBMC 중앙회 회장)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절강대학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지강대학의 후신이다. 때문에 중국정부가 기독교중심지로 정한 곳이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라는데 의의가 크다. 게다가 절강대학교가 올해 중국의 대학평가에서 북경대학교 청화대학 을 누르고 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이번 한중학술교류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세워질 국제기독교연구센터가 기독교 학문 보급과 학술 교류에 기여하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경제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및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술로는 『알짜 시장경제』, 『시장인가, 정부인가』,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등이 있다.